

월간 내일

March 2025
Vol.598



웹툰 작가 미강



CONTENTS

행복을 위한
필수 영양소

소통

March 2025 Vol. 598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보람

<내>일의 감각이 필요한 시대,
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감각에 관한 이야기

08

다짜고짜 설문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통의 정석 "대화가 필요해"

10

일잘러를 만나다

'성장'을 위한 속도를 늦추고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을 시작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6

내일 인터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진심에 있다
웹툰 작가 미강

내일의 바람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고용 관련 정책과
활기 넘치는 현장의 소식

20

MOEL 아카이브

일하는 엄마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24

굿 파트너

친절과 공감은 기본 좋은 기억만 드립니다
남양주고용센터 이경미 고용지원관

28

체인지업! MOEL

우리가 행복해지는 2025
모두의 삶이 달라져요!

32

함께 하는 MOEL

장애인 자립기반의 희망을 빛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36

내일 로그

반려동물에게 선사하는 향긋한 건강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

내일의 사람

일하는 사람들의 워라벨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보

38

MOEL 뉴스

42

아보하 스폿

어느 봄날, 예술관 산책
충무로 스트리트 뮤지엄

48

내일 톨

· '그럴 수도 있겠다'
· 산뜻한 마음으로

50

취향시대

업무 공간에 나를 더하다

52

직장인 어휘 캘린더

힘내라! 격려할 때 '파이팅' 대신
아리아리

54

내일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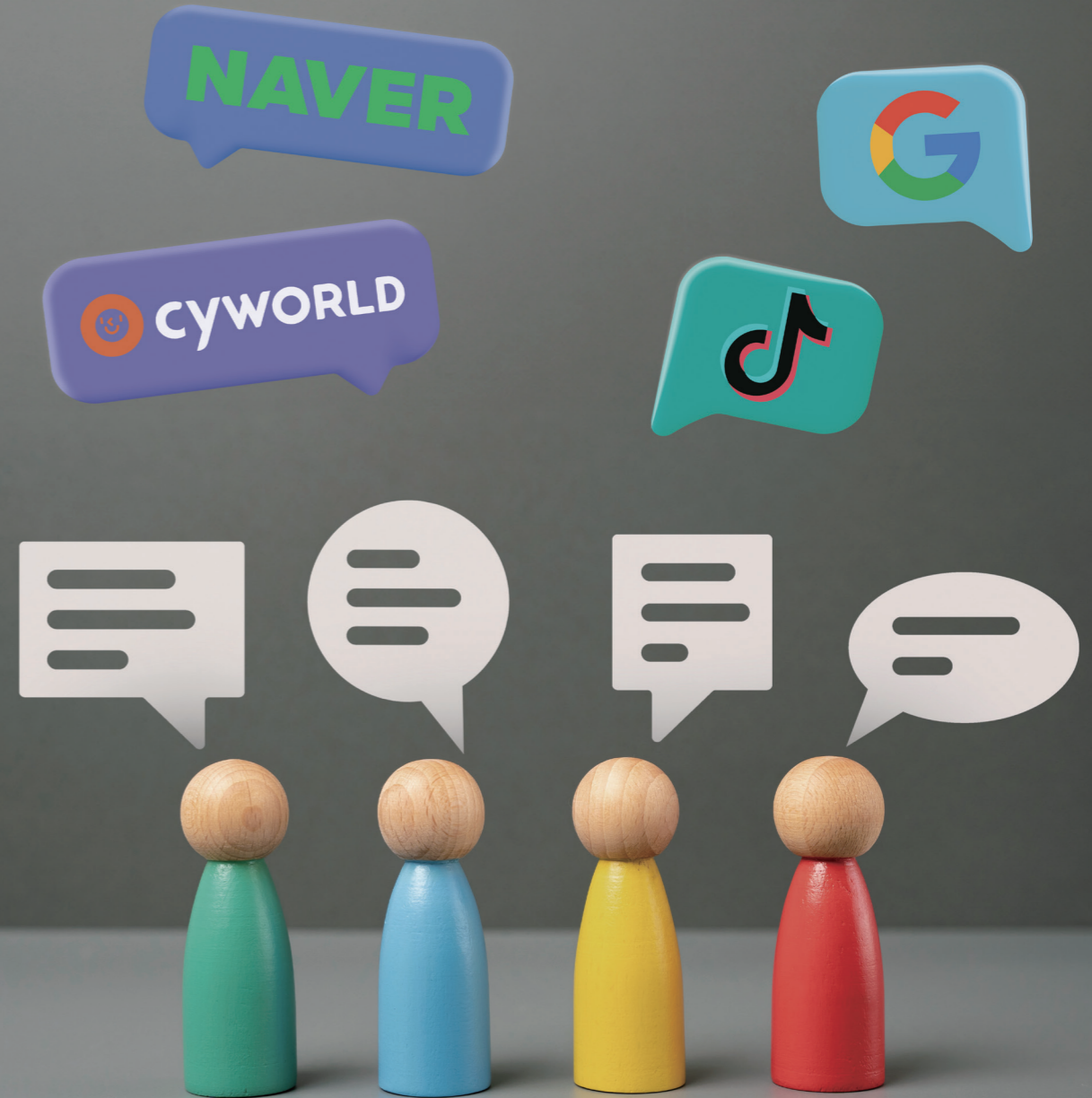


월간 내일
웹진 바로가기

X와 MZ가 만났을 때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힌 것 없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도 있듯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에서 오는
지체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는 오래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MZ'는 최신 유행어나 인터넷 문화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어떤 유머나 표현을 썼을 때 MZ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MZ가 사용하는 신조어나
트렌드를 기성세대는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는
대화를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엉뚱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차이 때문에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는 MZ세대의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고,
MZ는 기성세대들의 경험과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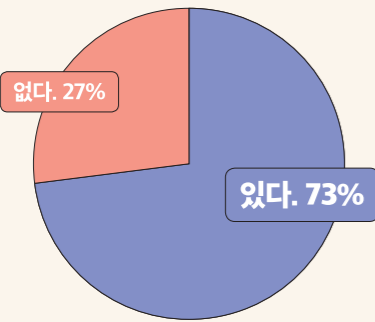
직장은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목표가 같은 의사결정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풍부한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소통의 정석 "대화가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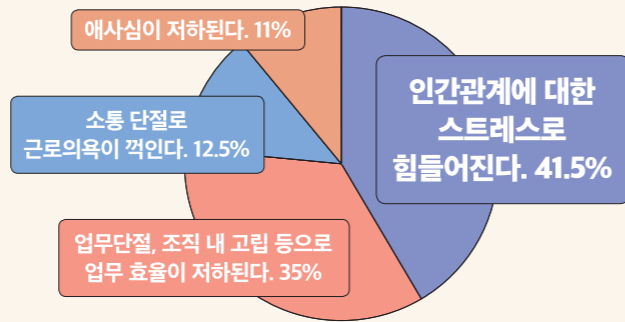
삶과 떨어질 수 없는 일!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일할 때 누구보다 무엇보다 뛰어난 감각이 필요한 시대다. 2025년 「월간 내일」에서는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일하는 데 필요한 감각에 대해 '아주 사소한 설문'을 해보려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원활한 직장 생활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통 감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글 편집실 설문조사 헤이폴(조사대상 200명, 조사기간 2025.2.14. ~ 2.15.)

Q1. 직장 내에서 소통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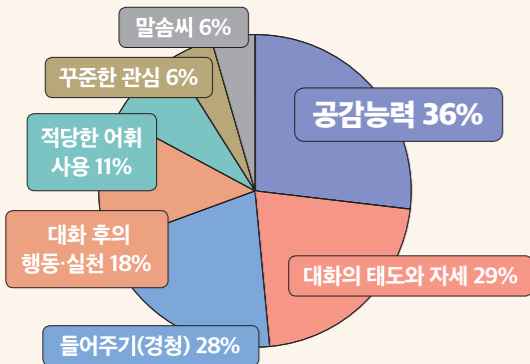


Q2. 소통 장애로 직장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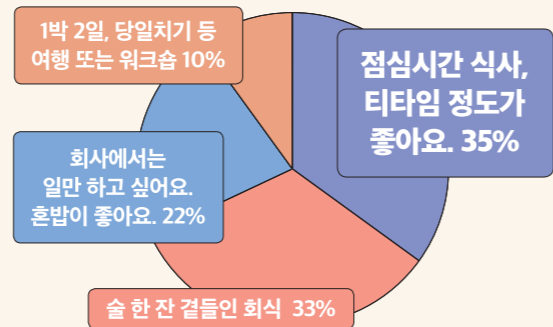


Q3. 소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중복선택 가능)



Q4. 동료 선루배와 원하는 소통 및 단합 방식은?



직장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나는 []을/를 노력한다!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노력해요.

직장 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상사, 동료, 부하직원, 거래처... 모두 소통이 잘 돼야만 일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니까요! 일뿐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도 소통은 중요해요. 하루 대부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소통을 위해서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대화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을 갖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 영등포구 K사
이나영 씨

나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업무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통명스러운 말투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가?' 하고 눈치를 살피는 거 같더라고요. 그걸 알고부터는 차분한 태도와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이나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소통이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서울 강남구
류병길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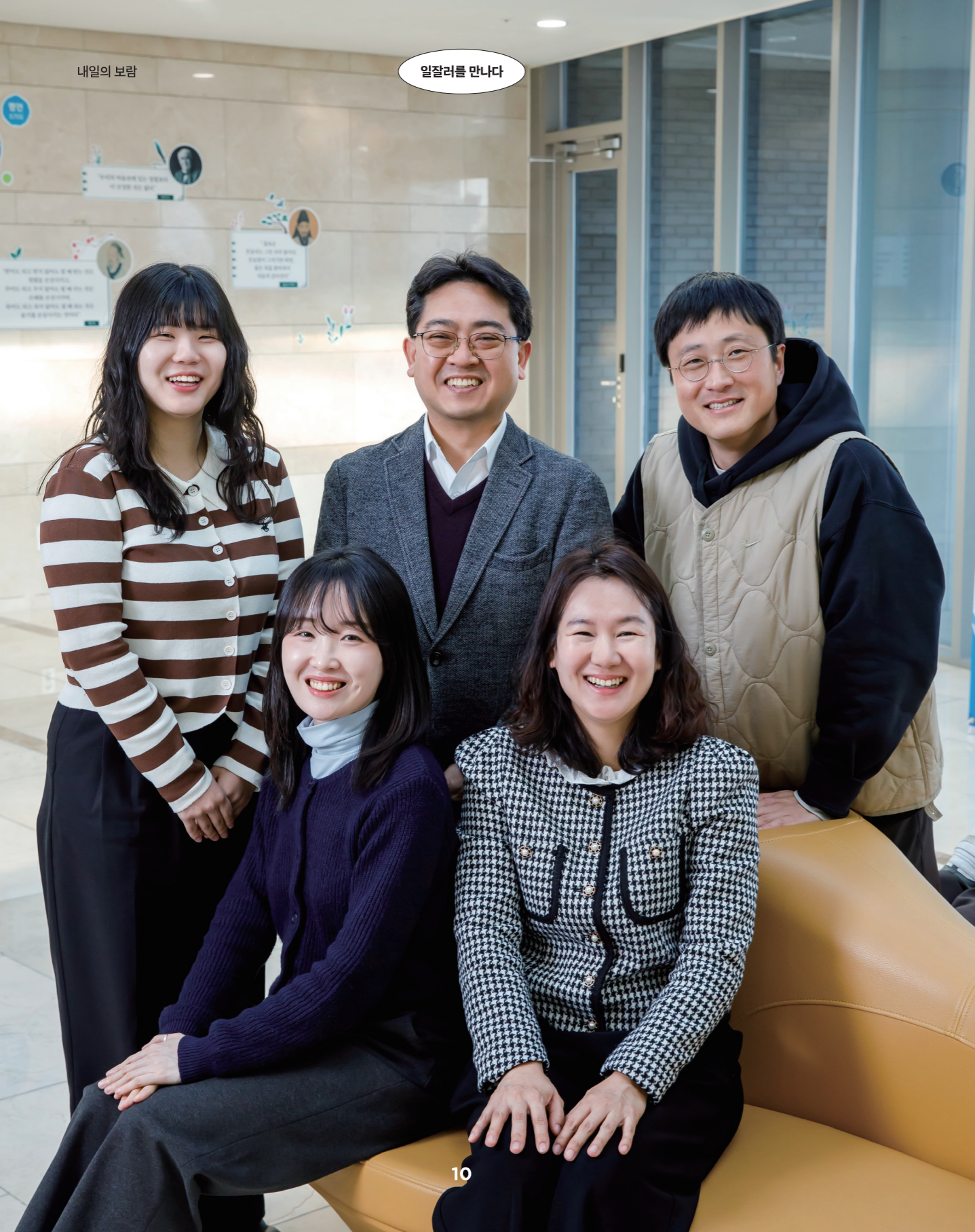
나는 [충분한 공감을 표시하려고] 노력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일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흥분을 하거나 감정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때 충분한 공감을 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답니다.

부산 수영구 H논술학원
김소은 씨



「월간 내일」에서는 2025년 '일의 감각'을 주제로 한 해 동안 사소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4월호에서는 새롭고 신기한 것에 반응하는 호기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QR을 스캔해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상품도 받으세요!



'성장'을 위한 속도를 늦추고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을 시작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라는 미션 완수를 위해 전력 질주해왔던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잠시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 잘하는 조직'만큼 중요한 것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이고, 구성원이 행복할 때 조직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우리의 조직문화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소통과 공감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글 박향아 사진 김경수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

원자력은 공급 안정성, 환경적 측면, 경제성 등에서 월등히 우수한 에너지다. 자원이 없어도 우수한 기술력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원자력이 우수성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선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다. 2009년 1월 1일 공단 설립 이후로, 원자력발전소, 병원, 산업체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종열 팀장은 "쓰레기 치우는 회사인데, 그 쓰레기가 '아주 특별하고 위험한 쓰레기'라는 설명과 함께, 공단에서 시행 중인 업무를 소개했다.

"위험한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주시 약 206만㎡ 부지에 총 80만 드럼 규모의 처분시설을 운영 중이고, 각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운반전용 선박인 청정누리호를 통해 안전하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처분시설 주변의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부지 주변 해양 사료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한 도전을 시작한 이유

공단이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조직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출발을 알린 것은 2009년 1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다. 설립된 지 15년 된 '젊은 기관'인 만큼 구성원 역시 젊다는 것이 특징. 30~40대 직원이 전체

**소통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젊은 조직이 갖춰야할 우선 과제**

직원의 60% 이상이며, 특히 30대 직원은 37%에 달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직이 젊다는 것은 '변화에 능동적이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통과 협력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출발이 늦은 만큼 조직의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집중해야 했을 터. 자연스럽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명확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온 결과, 공단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조직문화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도 하나둘 생겨났다.

“공단 내 조직문화 담당 부서가 없었고, 조직문화 개선인식 필요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개인, 부서 간 소통이 적어지면서 개인주의가 심화하였고요. 2018년 직장내괴롭힘금지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소통 강화 및 상호존중하는 인식 등 조직문화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컨설팅을 주관한 안수경 차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공단의 조직문화 현 수준을 진단받고 싶었다”고 했다. 우리의 현재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성장’을 위해 심 없이 달려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설립 13년이 되던 2022년에 잠시 멈춰서 조직문화를 돌아보고 변화를 위한 도전을 시작한 이유다.



공감과 소통을 통해 쌓아가는 단단한 신뢰

전문가 진단을 통해 조직문화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싶었으나, 예산확보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이미 해당 연도의 예산 책정이 마무리된 시점이었기에 미반영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 선례가 없기에 예산 편성의 기준도 없었을 터. 그렇기에 계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예산이 확보된 이후의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구성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우리 조직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조직문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공단에서 시행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구성원 불신이 팽배한 분위기였기에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컨설팅 이전에도 매년 내부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 평가용 데이터로만 활용되었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설문 내용을 구체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했기에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 안수경 차장의 설명이다. 심지어 주관식으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개선 의지가 없는데 조사를 하면 뭐 하느냐’는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공단의 조직문화 수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싶다는 목표로 컨설팅을 진행한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크고 작은 반응들도 우리의 현 상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구성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회사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변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소통하고 설득하며 변화를 만들어나갔습니다.”

침묵하는 조직에 소통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설문조사, 기관장, 경영진, 노조위원장 및 인사담당자 등 구성원 인터뷰를 통해 내려진 진단은 ‘침묵하는 조직문화’. 본부 부서, 개인 간 소통의 부재로, 각자의 업무만을 우선시

하는 이기주의와 교류가 없는 침체한 조직문화가 존재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진단에만 그친다면 컨설팅은 무용지물이다. 공단은 진단을 토대로 코라드 ‘변화관리자(체인저스)’를 선발했다. 체인저스는 전 직원 대상의 설문을 통해 직급이나 부서에 관계없이 변화를 주도해나갈 직원으로 구성하여, 신뢰를 높였다. 이렇게 선발된 체인저스를 중심으로 상호 존중 문화 구축을 위한 토론식 워크숍을 열고, 이를 통해 조직에 꼭 필요한 요소를 선정, ‘그라운드 룰’을 만들었다. 도출된 그라운드 룰은 포스터 및 다양한 홍보 물품으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시행함으로써 구성원들의 공감과 실천을 꾸준히 독려해나갔다.



또한, 코라드 체인저스 선발 정례화, 매월 11일을 상호존중의 날로 지정, 소통 공감 활동 확대,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확산, 육아기 특례제도 운영 및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 등 행복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필수. 직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유연근무제의 다양화 역시 이러한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다.

“공단은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원격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과가 향상되고 일·생활 균형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공단 전체 직원의 27%가량이 여성 직원이며, 특히 30~40대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은 68%에 이르는 만큼, 이들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기단축근무제, 육아시간제 시범운영, 육아기특례제도 등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육아시간을 확보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단단한 조직문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지속적으로 조직문화 구축의 필요성을 알리고,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나간 시간. 구성원의 조직문화 및 조직커뮤니케이션 만족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고, 2023년에는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에서 높은 점수가 나와, 공단 창립 이후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눈에 보이는 수치보다 더 큰 변화는 ‘침묵하는 조직’에 ‘자발적인 소통’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1년에 3~4건이었던 ‘소통 채널’이 이제 매달 다



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구성원이 목소리를 내면 회사는 듣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경험이 쌓인 결과다.

2025년 1월에는 조직문화 전담 조직인 ‘조직문화혁신반’도 신설됐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듯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구성원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담조직이 발족한 만큼, 더 단단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성원의 인식변화를 통한 조직문화 혁신의 중요성을 경영진과 직원이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오랫동안 근무하고 싶다’라는 인식이 향상되어 입사 5년 차 미만 직원의 퇴사율이 줄어드는 것이며, 장기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MINI INTERVIEW



안전총괄팀 전상일 차장

체인저스 1기, 조직문화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최종적으로 일을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통’을 통해 많은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전한 현장을 위해 시행 중인 ‘제안신고제’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가 가져온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고준위전략팀 정슬 과장

8세, 7세 남매를 키우고 있어서, ‘육아시간제’를 활용하고 있어요. 9시 반에서 4시 반까지 근무하니 경력 단절 없이 등원과 하원을 직접 챙길 수 있죠. 자연히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고요. 조직문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운데요. 우리 회사는 누구나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육아하는 직원들이 제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결은 진심에 있다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면 한순간에 학교 운동장을 뛰어놀던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 사는 동네가 달라도, 지나온 세월이 아무리 길었어도 말이다. 그렇게 마음이 통해버린 인연은 한마디 말로도 반가운 인사가 되고, 마주하는 눈빛으로 깊은 위로가 된다. 웹툰 작가 미강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그렇다. 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가 시작된다.

글 차유미 사진 김경수

Q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최근 일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알라딘 투비컨티뉴드'에 <미강이 또 술 얘기한다> 시즌2를 연재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저의 일상과 술에 대한 소소한 정보를 담은 에세이 만화예요. 시즌2는 우리술 특집으로 연재하고 있고, 곧 책으로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밖에는 지난해부터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만화스토리텔링'을 강의하고 있어요. 개강을 앞두고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오늘 탈을 쓴 모습이시네요. 인터뷰하실 때 얼굴을 안 드러내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술꾼도시처녀들>의 독자라면 아무래도 술꾼이 많을 거고, 술꾼들 잘 가는 맛집은 또 거기서 거기잖아요. 한창

술 마시고 취해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알아보면 민망할 것 같아서 첫 인터뷰 때 얼굴을 가리고 나갔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뒤로 계속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취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웃음) 사실 걸모습보다는 진심을 나누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만화를 보시는 분이나 저의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Q <술꾼도시처녀들>은 3년간 인기리에 연재되었어요.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인의 술 사랑이 인기 비결 아닐까요? (웃음) 사실 '술도녀' 이전에는 미디어에서 술을 맛있게, 많이, 주체적으로 마시는 여성 캐릭터가 없었어요. 극 중에서 여성이 술을 마신다면 대개 실연을 당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술이 '맛있어서' 좋아하고 잘 마시는 여성들, 일 끝나고 시원하게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여성들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독자들이 반가워하고 공감했던 것 같아요. 또한 주인공 세 친구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때로는 평범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죠. 꼭 나 같고, 내 친구 같아서 더 친근하게 느끼신 것 같아요

Q <술꾼도시치터녀들> 외에도 <거짓말들> <하면 좋습니까> 등 누구나 겪는 일상의 문제들이 소재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서 겪는 소통의 문제라던가, 관계의 문제라던가요. 이런 소재는 어떻게 발굴하시는지요?

그러고 보니 제가 그린 세 작품 모두 직장 생활 에피소드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부러 소재

를 발굴한다기보다는 만화가로 데뷔하기 전에 1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소재로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상사에게 메시지를 잘못 보내서 식겁했던 일, 회식에 빠지려다 거짓말이 들통난 일, 부서 간의 기싸움 등 실제 경험이 많이 녹아 있어요. 물론 힘든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료들과 소통하며 즐거웠던 순간, 좋은 선배와 상사를 만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기억들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Q 또, <해장 음식> 등을 보면, 음식(안주)에 정말 진심하신 거 같아요. 이런 소재들이라 더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을까요?

특별하지 않은 걸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내용일



수록 담담하게 보여줄 때 호응이 있죠. 예를 들면 온도 70도씨의 물을 작가가 "엄청 뜨거워! 100도씨야!"라고 호들갑을 떨면, 막상 만져봤을 때 실망하잖아요. 70도씨니까요. "이거 뭐 대충 60에서 70도씨 정도 됩니다만" 하고 스스욱 내미는 게 좋다고 봐요. 일상 소재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100도씨의 뜨거움보다는 70도씨의 잔잔한 이야기, 65도와 70도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를 더 좋아한다고 봐요. 그 언저리에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것 같네요.

Q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작하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저 자신에게 즐거움을 줘요. 내가 만든 이야기에 내가 푹 빠져서 무아지경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작품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부터는 불특정다수의 독자를 생각해야만 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지, 독자들에게 또는 이 세상에 작게나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한순간의 재미나 재치를 위해 누군가를 상처 입히거나 세상에 해를 끼치는 표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많이 느껴서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요. 잘 가르치기 위해 제가 더 배우기도 할 거고요. 학생들과 부대끼는 틈틈이 차기작도 작업해야지요. 만화가 될지 글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요.

Q 「월간 내일」 독자에게 “소통”에 관해 한마디 하신다면요?

만화를 그리든, 글을 쓰든, 학생들을 가르치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는 걸 자주 생각하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공감을 끌어내려면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기만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저도 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소통은 결국 상대방을 먼저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엄마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육아지원 3법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한 육아 지원 확대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다.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의 핵심을 쏙쏙 뽑아 알아보자.

정리 편집실



임신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해야 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초기 사용 가능)

난임 치료 휴가

- 연간 3일 → 6일
- 유급기간 1일 → 2일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신설(2일)

출산 시

출산하면 충분히 쉬어야 해요!

출산 전후 휴가

- 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유산·사산 휴가

-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5일 → 10일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 20일
-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 기간 5일 → 20일
- 네 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기

아이와 더 많이 같이 있어 줘야 해요!

육아휴직

- 기간 연장(1년 → 1년 6개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급여 인상 등
 - (1~12월) 월 150만 원 → (1~3월) 월 250만 원 (4~6월) 월 200만 원, (7월~) 월 160만 원
 - 사후지급금 폐지
- 부모와 함께 육아휴직
 - (1월) 월 200만 원 → 월 2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3년 사용 가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
- 자녀 연령 확대 8세(초2) → 12세(초6)
- 최소 사용기간 단축 3개월 → 1개월

사업주 지원

사업주도 지원해요!

대체인력 지원금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파견사용 시에도 지원
지원금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월 20만 원)

육아휴직 지원금 인센티브

- 사업장별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에 대해 월 30만 원에 10만 원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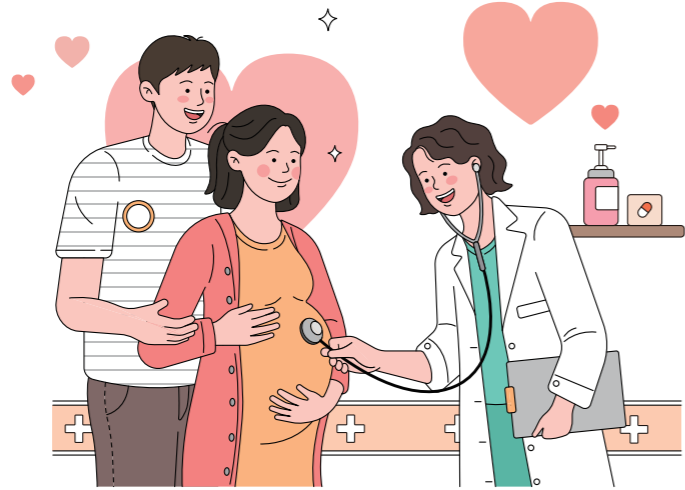
유연근무 장려금

- 육아기 유연근무 시 지원 금액 확대
월 최대 40만 원 → 월 최대 60만 원



Q&A

2025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Q 개편되는 육아지원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되었고, 공포 후 4개월 뒤인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단,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산정 관련 단축 시간도 출근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법률 공포일부터 시행됐습니다.)

Q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변동 없이 만 8세(초2)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2)에서 만 12세(초등 6) 이하로 확대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도 개편 시행일('2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인상은 '2025년 이후 사용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시) 육아휴직 기간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인 경우

-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1~2번째 달) 기존 제도에 따라 월 150만 원 지원
- 2025년 1월 1일 ~ 1월 31일(3번째 달) 월 250만 원 지원
- 2025년 2월 1일 ~ 4월 30일(4~6번째 달) 월 200만 원 지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7번째 달) 월 160만 원 지원

Q 2024년 부모 모두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6개월씩 사용했습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게 되면 7개월 차부터는 인상된 급여 250만 원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대상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특례 급여를 지급하고, 7개월 차부터는 월 16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Q 2024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6개월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여 총 1년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2025년에 사용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첫 달 250만 원을 상한액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6개월이지만,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했으므로 첫 달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Q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연장된 6개월을 사용할 때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기간 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간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Q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를 가진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학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자인 배우자도 3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환할 수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용 가능한 1년의 육아휴직 기간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Q 신설되는 난임치료 휴가 급여는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난임치료 휴가 급여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연간 난임치료 휴가 기간 중 유급기간인 최초 2일에 대해 지원하되, 개정법 시행('25.2.23.)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 휴가 기간부터 지원합니다.

Q 중소기업 사업주가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친절과 공감은 기본 좋은 기억만 드립니다

이경미 고용지원관은 잘 ‘듣는’ 사람이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고 니즈를 파악하며 공감을 나눈다. 명확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용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2024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이라는 뜻깊은 결과로 이어졌다.

글 김주희 사진 김경수



가까이 더 가까이, 다정한 공감

고용노동부는 국민과 기업에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한 4개 고용센터와 직원 32명을 2024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남양주고용센터 이경미 고용지원관도 영광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2022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친절카드 32건을 받을 정도로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수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잘하

고 있는지 한번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사실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위축된 심리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업급여는 생계와 직결된 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센터를 방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나 용어가 생소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해요.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을 떠올리며 가족이 온 것처럼 응대하고 있습니다.” 이경미 고용지원관은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당장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2024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남양주
고용센터
이경미
고용지원관



짚어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이다. 고객의 마음과 말을 헤아리며 '어떤 걸 필요로 할까?', '무엇을 더 챙겨 드리면 좋을까?' 고민한다. 반복적인 문의사항의 경우 한눈에 잘 보이도록 가시화한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다. 회차별 급여 지급 일자, 의무 출석일 등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도 고객이 손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입장에서 매번 똑같은 답변일지라도 고객에게는 낯선 정보라는 걸 항상 떠올립니다." 친절과 공감이야말로 상담원의 기본 자세라고 강조한다.

'내일'을 도모하는 재취업 지원

이경미 고용지원관은 지난 6년 4개월 동안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며 수급자격, 실업인정,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교육,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남양주고용센터와 구리고용센터를 순환하며 근무하는 중인데, 구리고용센터 근무 당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구리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2022년



28%에서 2023년 34%로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의무출석일에 상담을 하다보면 재취업 의지가 높은 고객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취업 알선을 할 수는 없지만 유관기관을 비롯해 지자체 내 취업 전담 부서에 명단을 전달하고 재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업무를 위해 센터를 찾는 고객들이 직업훈련이나 취업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제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대신 제가 아는 선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 부서를 연결해 주고자 합니다. 고객에게 정보가 단절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볼날처럼 파스한 기억이 되길

고객만족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소통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는 이경미 고용지원관. '대화'가 말이 오가는 과정이라면 '소통'은 감정이 오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되 고객과는 공감을 바탕으로 소통을 이어간다. 불안해하는 고객의 심정을 헤아리고 신뢰를 보여주는 것. 업무를 마친 후에도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도움말을 건네며 고객만족을 이끌고 있다.

"종일 힘들게 일하다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한마디에 보람이 밀려옵니다. 언젠가 고객이 칭찬을 해주

"어려운 시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억만 주는 상담원이 되고 싶습니다."



셨는데요. 같은 아파트 지인 모임에서 '고용센터 3번 창구 상담원이 정말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요. 공공기관의 역할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칭찬을 받으면 항상 더 친절하게 응대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경미 고용지원관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고객만족도를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구리와 남양주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정보를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부터 재취업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좋은 기억만 주는 상담원'이 되길 바랍니다. '고용센터 갔는데 친절하 직원'이 있더라, 그 센터가 참 좋더라' 등 고객이 고용센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절과 공감이 현장에서 고스란히 발현되고 고객에게 가 닿을 때 마침내 감동과 칭찬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칭찬은 다시 업의 보람과 열정으로 되돌아오는 법. 친절이 만든 기본 좋은 선순환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는지.



2025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 및 중장년 고용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이뤄진다. 세대별, 대상별로 무엇이 달라지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본다. 글 편집실 자료 고용노동부

우리가 행복해지는 2025 모두의 삶이 달라져요!



청년의 꿈 이름을 응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확대

'쉬었음' 청년이 42만 명에 달할 만큼 많은 청년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활성화한다.

	유형 I	유형 II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 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참여 가능 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산업, 지역별 주력육성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비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청년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분야에 청년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업무협약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직업능력개발 사업 연계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고용노동부 디지털 직업훈련 수료생 ↓ 과기정통부 심화 과정 참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구직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강화 2025 디지털 교육 5만 명↑ 추진



다시 일어서는 중장년의 튼튼한 힘이 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유망 자격훈련 지원, 일·경험 기회 제공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 분야를 개발하고, 자격증을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 등을 통해 올해 3만 5천 명, 3년간 14만 명의 유망 자격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현장 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해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경험 기회도 제공한다.

전문가·기술자 기존 경력 활용 일자리로 재취업 위한 맞춤 지원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 중장년을 위해 '경력이 음형 일자리' 우수모형을 올해 6개 이상 발굴하고, 전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3년간 4천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유망 자격증,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위한 지원 확대

다른 직종으로 이동이 많은 사무직·서비스직 등 중장년을 위해서는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서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천 개 발굴하고, 지역대학 등을 통해 채용 예정 훈련과 일자리 알선을 지원한다.

장애인과 노동약자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장려금 확대 등 장애인 고용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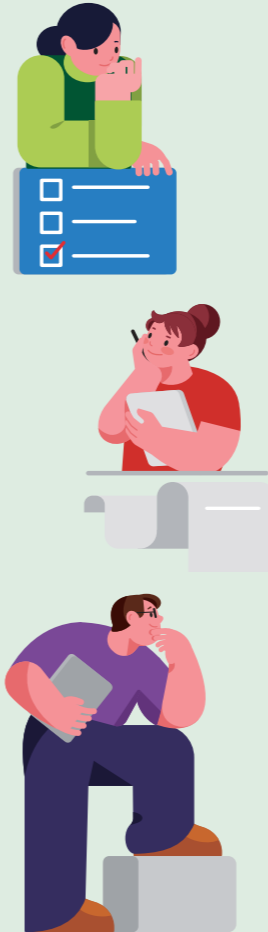
장애인 의무고용률 초과 사업장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장애인을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폭 확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 등 장애인 고용예산을 319억 원 증액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9,372억 원으로 편성한다.

노동약자 보호 강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설한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전국 10개소로 확충하고 이음센터 내에 노동약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특화 프로그램과 분쟁 조정기능을 신설한다. 아울러,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지원, 체불청산·생활 안정자금 융자 등 노동약자 권리구제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약자 지원	160억 원(신설), 대지급금 지원: 5,293억 원(+546억 원)
체불청산 지원 융자	704억 원(+302억 원), 생활 안정자금 융자 915억 원(+30억 원) 등

이렇게 달라집니다!



	AS-IS	TO-BE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었음 청년 42만 명 대 • 직무경험 없이 취업 준비 • 여전한 일자리 미스매치 (빈일자리율 0.9%, 빈일자리 수 16.6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24년 1조 924억 원, 20만 명 → '25년 1조 2,046억 원, 31만 명 ① 쉬었음 청년 5만 명 발굴 후 1:1 취업 상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지원(1.2만 명) 등 연계 ② 일 경험 5.8만 명 ③ 빈일자리 취업 지원 5.8만 명 ④ 첨단 분야 훈련 4.5만 명 등
40대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베이비부머 중 164만 명,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4년 1,319억 원, 16.9만 명 → '25년 1,544억 원, 20만 명 ① 경력설계 5만 명 ② 직업훈련 13만 명 ③ 계속고용 사회적 대화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일할 기회, 직업훈련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4년 9,053억 원, 70.3만 명 → '25년 9,372억 원, 81.8만 명 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76만 명 (+13만 명) ② 표준사업장 지원 최대 15억 원 (+ 5억 원)
노동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법·제도로 보호가 어려운 50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 강화 *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복지지원 확대 등 •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의무화(+ 5억 원)

장애인 자립기반의 희망을 빛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제과팀 고민수 사원



제과팀 강현화 매니저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혼자서 빛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희망별숲. 제과팀 강현화 매니저와 고민수 사원을 만나 희망별숲과 그곳의 빛나는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글 차유미 사진 김경환

Q 희망별숲은 어떤 곳인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희망별숲은 삼성전자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희망별숲에는 별들이 종종 떠 있는 하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우리말 '별숲'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의 기반을 다지며 '희망'을 꿈꾸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희망별숲은 발달장애인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제과팀과,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P&P(POP-UP&PACKAGE)팀 이렇게 두 개의 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별숲은 획일화된 환경이 아닌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희망별숲은 사원분들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만의 속도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Q 희망별숲은 국내에서도 드물게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희망별숲이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주목하게 된 이유는 15가지의 장애 유형 중 상대적으로 직업생활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이 발달장애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희망별숲은 발달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희망별숲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직무와 업종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Q 설립 당시 56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요?
 희망별숲은 2022년 12월 6일 설립되었고, 2023

년 3월 발달장애 사원 56명 채용을 시작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2025년 2월 현재 3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남다른 프로그램이나 시설 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해 주세요.

희망별숲은 단순히 회사의 규모 성장이나 수익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 사원분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장애인 고용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사원들이 그들만의 속도로 일을 배우고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 그곳이 희망별숲입니다.

이 그들만의 속도로 일을 배우고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에, 정서적인 안정 및 여가 활용 부분에도 비중을 두고 일과 시간 내 산책 프로그램, 연 2회 희망별숲 전체가 함께 하는 나들이 프로그램, 유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직원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 "별숲지기"와 함께 매월 삼성세미콘스포렉스(실내체육관)에 모여 문화, 체육활동 da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전국적으로 표준사업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희망별숲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표준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 더 많은 발달장애인분들도 저희처럼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과팀 고민수 사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뜻 깊은 일을 한다는 보람도 있어 좋아요!

희망별숲은 사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드는 쿠키와 생일 카드가 삼성전자 직원 분들의 생일을 축하해 드리는 뜻 깊은 선물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산책, 서포터즈단 활동, 에버랜드와 박물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인기가 많은 이유 중 하나인 듯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선사하는 향긋한 건강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2천만 명을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가운데, 반려동물 관련 직업이 갈수록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동시에 유망 직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허브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심신 건강 증진을 이끄는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도 그중 하나다.

글 강진우



반려동물 향기요법 전문가

허브에서 추출한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이 품은 향기와 효능을 활용해 몸과 마음이 안정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아로마 테라피(향기요법)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지 오래다.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는 반려동물에게도 유효하다.

반려동물의 대표 격인 반려견은 약 2억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갖고 있는데, 사람보다 20~40배 높은 수치다. 당연히 반려견의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며, 따라서 아로마 테라피를 적절히 활용하면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 및 알레르기 완화, 분리불안과 공격성 감소, 비만·우울증·트라우마 치료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람에게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그대로 반려동물에게 적용하다가 오해될 수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으면서도 반려동물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문 직업이 있으니, 바로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다.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는 견종, 나이, 몸무게, 질병 유무, 약 복용 여부,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로마 테라피 제품을 맞춤 제작한다. 이때 반려동물에게 사용 가능한 에센셜 오일만을 선별해 사용하며, 오일의 투입량과 블렌딩 비율도 반려동물의 건강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작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반려동물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맞춤형'과 '범용'을 넘나드는 활약상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려면 배워야 할 게 많다. 각 에센셜 오일의 효능과 반려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하며 사용 가능한 적정 용량도 속속들이 파악해야 한다. 조향법, 약리학, 동물 행동 심리학, 동물 해부학과 이에 따른 마사지법 등도 공부 및 실습해야 한다. 아울러 향초, 비누, 입욕제, 샴푸, 치약 등 사용 상황에 따라 아로마 테라피 제품이 다양하므로, 각각의 제품을 만들 때의 용량·용법·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를 깊게 공부해야 하기에, 인정받는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려면



적어도 1~2년은 공부와 실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게 현직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일일이 찾으며 공부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격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영기관에 따라 반려동물아로마관리사, 반려동물아로마테라피 전문강사 등 자격증 이름이 상이하지만, 교육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통 개인 공방을 열거나 문화센터, 관공서 등에서 강사로 활동한다. 개인 공방의 경우 각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강사 활동은 원데이 클래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대상 아로마 테라피 관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및 아로마 테라피 전문기업과 협업해 범용 아로마 제품을 출시하는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도 상당수다. 반려동물 인구와 맞춤형 아로마 제품을 원하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활약할 수 있는 기회와 무대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01
온열질환 예방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25.6.1.)을 앞두고,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구체화하

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02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정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전국 고용센터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함께 개최한다. 지역의 기업과 구직자들도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기업, 정부, 경제단체 등이 더 많

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특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최하다.

03
해외 9개국에
대한민국 청년
일·경험(WELL)
기회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 운영기관’ 22개를 선정하고, 참여 청년을 모집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년

들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한다. 미국·일본·호주 등 9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551명을 모집하며, 참여 청년에게 월 150만 원의 체재비와 국가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준비금을 지원한다. 3월부터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04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난 2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29명의 중소기업 협회장이 참여하여 근로시간제도 개선,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산재 예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김문수 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등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05 고용노동부, 일·육아 지원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132,535명으로 2023년 126,008명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23년 다소 감소했던 육아휴직 사용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이 41,82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하여 최초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6,771명으로, 2023년 239,529명 대비 17,242명(+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는

06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월 26일,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했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붕괴 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굴착기 등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사고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월 26일, 다가오는 봄철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실시했다. 해빙기(2월~4월)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

07 '근로자이음센터' 서비스 대상 확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택배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함께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이해 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근로자이음센터는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되어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고, 카카오택배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대상을 확대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함께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세금 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연중 제공할 예정이다.

08 '푸른씨앗' 조성액 1조 돌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4년 말 기준 2만 3천 개 사업장의 10만 8천 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 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써 '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월 26일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4년 말 기준 2만 3천 개 사업장의 10만 8천 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 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써 '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를 기록했다.



어느 봄날, 예술관 산책

총무로 스트리트 뮤지엄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제법 따뜻해진 봄날, 추위에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누리고 싶다면 총무로 골목길 산책에 나서 보자. 골목 깊숙이 들어갈 때마다 펼쳐지는 예술의 향연에 당신의 봄날이 더욱 풍요로워질 테니까.

글 김민영 사진 정우철

총무로 필동에 자리한 골목길 박물관



서울의 총무로는 우리나라 영화의 메카로 잘 알려진 동네다. 많은 영화, 예술인이 총무로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불과 지난해까지도 운영되던 대한극장, 총무로영상센터 등 영화 관련된 장소들이 이곳이 예술의 동네였음을 실감하게 해준다. 지금은 그 흔적이 많이 사라졌지만, 총무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예술의 성지'로 기억되고 있다. 총무로 필동에 자리한 '스트리트 뮤지엄'은

'예술의 성지'라는 별칭이 어색하지 않을 법한 골목길이다. '뮤지엄'이라는 명칭이 붙은 탓에 어느 한 편에 마련된 박물관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필동을 시작으로 남산골한옥마을 일대를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말 그대로 '스트리트 뮤지엄'이다. 오며가며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필동 문화 예술 거리 예술통이라고도 불린다.



골목길에 예술을 담다



이 거리는 총무로에서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한 대표의 아이디어로 꾸려졌다. 총무로에 영화, 광고, 사진, 출판 등 문화예술의 기반이 되는 산업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대표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 남은 문화예술의 흔적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고민 끝에 마을 주민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미술관을 떠올렸고,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짐들이 쌓인 골목 곳곳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미술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공간을 만드느라 생긴 소음으로 인

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젊은 작가, 문학가 등 여러 예술가가 모여 골목길에 활기를 불어넣자, 주민들의 반응도 점차 좋은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렇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예술가들, 주민들의 손길이 모이고 모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골목길 미술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스트리트 뮤지엄'은 총무로역 4번 출구로 나오면 보이는 '예술통' 안내 표지판에서부터 시작하거나, 남산골한옥마을 후문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지만 접근성을 고려한다면 총무로역 4번 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더 편할 듯하다.





8개의 공간에 깃든 예술가들의 시간



되는 모퉁이에는 원래 강렬한 빨간색이 인상적인 강형구 작가의 <자화상>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작가의 설치 미술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조금 험상궂은 사람의 조형물이 맞이하는 동지에는 그래피티 작품이, 브브브벽에는 나무 밀동으로 만든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텅 빈 몇몇 공간을 보니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래도 브브브벽을 지나 남산골한옥마을 안에 자리한 우물, 이음, 골목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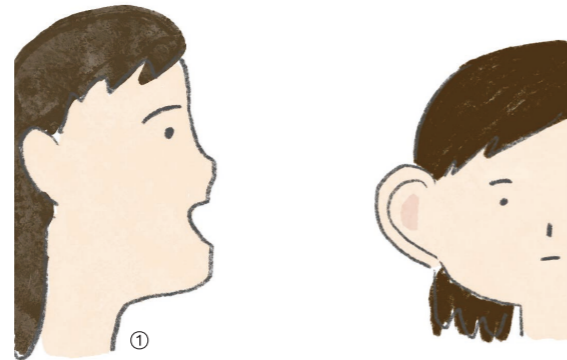


스트리트 뮤지엄 산책에 나서기 전에 '컨테이너, 모퉁이, 사변삼각, 동지, 브브브벽, 우물, 이음, 골목길' 총 8개의 전시 공간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면 좋다. 골목 골목을 걷다 보면 모르고 스쳐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관람할 수 있도록 거리 중간마다 스탬프를 비치해 뒀으니, 미션을 수행하는 기분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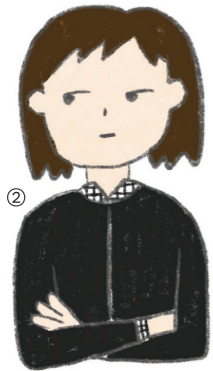


산책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면, 컨테이너에 전시된 독특한 그림을 시작으로 벽화를 따라 천천히 걸어보자. 귀여운 그림을 보는 사이 가장 먼저 만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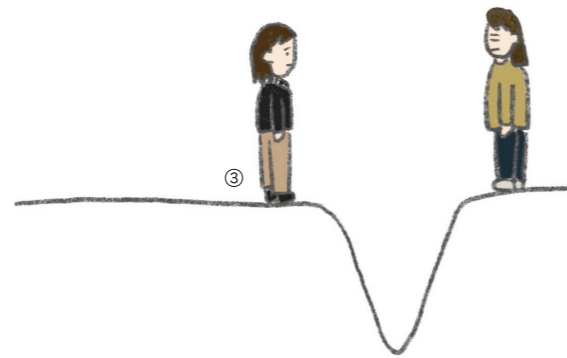
되는 모퉁이에는 원래 강렬한 빨간색이 인상적인 강형구 작가의 <자화상>이 전시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른 작가의 설치 미술이 공간을 채우고 있다. 조금 험상궂은 사람의 조형물이 맞이하는 동지에는 그래피티 작품이, 브브브벽에는 나무 밀동으로 만든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텅 빈 몇몇 공간을 보니 아쉬움이 밀려온다. 그래도 브브브벽을 지나 남산골한옥마을 안에 자리한 우물, 이음, 골목길까지 찾는 재미를 놓치지 말 것. 숨이 찰 때 짬 한옥마을 안에 이질감 없이 녹아든 공간들이 눈에 보이면 반가운 마음이 절로 들 것이다. 스트리트 뮤지엄 산책은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골목에 새 숨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과 작가들이 들인 시간의 깊이가 느껴져 몇 번이고 다시 돌아보고 싶어지는 건 당연한 일일 테다. 형형색색의 꽃이 피는 봄의 절정에는 이 일대가 산책하는 사람들로 붐빌 텐데, 이토록 의미 있는 공간들이 더 다양한 작가의 전시로 빠르게 채워져 오가는 사람들의 시간을 더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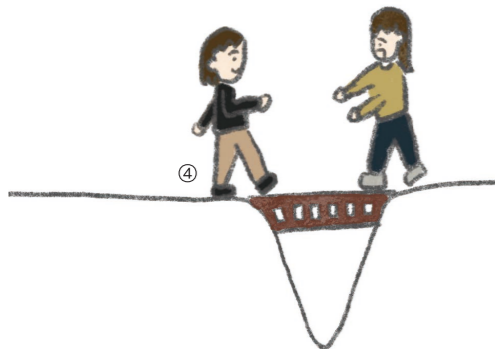
대화를 할 때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내 방식대로 해석할 때 오해가 생긴다.



오해가 지속되면 나쁜 감정으로 변하고 골이 깊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서로가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더 편안해져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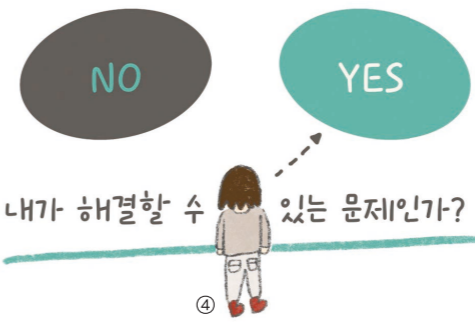
산뜻한 마음으로



봄이 왔네요.



저는 올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지냈기로 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늘 유쾌한 마음으로요.



여러분도 하루하루 너무 무겁지 않게 산뜻한 날들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업무 공간에 나를 더하다

머무는 공간에 취향을 덧붙이는 스페이스덴티티(Spacementy) 트렌드가 끝을 모르고 확장되고 있다. 이는 사무실 책상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과연 어떤 '책상템'으로 개성적 안락함과 높은 업무 효율성을 모두 사로잡은 업무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

글 강진우



● '책꾸'로 완성하는 편안한 일터

사실 직장인들의 '책꾸(책상 꾸미기)' 열풍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책상을 꾸미는 일에 관심 있다'고 답했다.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했지만, 2023년 엔데믹 돌입과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부활했다.

팬데믹 이전 책상 꾸미기의 키워드는 '생산성'이었다. 손목 보호용 마우스 패드, 일정 기재용 달력, 개인 사무용품 수납장 등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책상을 채워 나간 것. 오늘날의 책상 꾸미기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지향하지만, 최근에는 개성적 공간을 만들고 심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짙어지고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 굿즈로 책상 곳곳을 가득 채우는가 하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어 주는 참신한 제품도 과감하게 들인다.

전문가들은 '나만의 것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업무 공간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 나만의 사무실 책상을 만들어 가는 책꾸 트렌드는 업무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요컨대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책상 꾸미기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돋보이는 개성 속에서도 모두의 사랑을 두루 받는 책상템은 존재한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아이템 3가지를 살펴보자.

● 반려식물

지난해 본격화된 반려식물 트렌드가 사무실에도 뿌리를 내렸다. 책상에 작은 화분 한두 개를 가져다 놓고 키우는 직장인이 부쩍 늘어난 것.

사무실 책상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나만의 업무 공간!

초록빛을 띄는 식물은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가습 효과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용하다. 개운죽, 나한송, 호야, 죽백, 테이블야자 등 1~2주에 한 번만 물을 줘도 되는 생존력 강한 식물을 선택하면 관리의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 타공보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타공보드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타공보드에는 이름 그대로 동그란 구멍이 일정 간격을 두고 뚫려 있는데,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거치대를 장착·분리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각종 개인용품과 사무용품을 원하는 모양으로 보관하는 작은 자유를 만끽해 보자.

● 머그컵 워머

친환경 가치소비의 확산에 따라 머그컵을 사용하는 직장인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컵 안의 음료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는 머그컵 워머의 인기도 상승 중이다. 일반적으로 머그컵 워머는 충전 패드처럼 생겼는데, 이 위에 컵을 올려 놓으면 음료의 온도를 마시기 좋은 60~70°C로 유지시켜 준다. 패드 위에 놓은 컵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안전 기능도 대부분 갖추고 있다.



힘내라! 격려할 때 '파이팅' 대신 아리아리

혹시 '아리아리'가 무얼 의미하는지 눈치채셨는가? 맞다. 아리아리는 누군가를 응원할 때, 기쁘고 신명 나게 어떤 일을 해내길 격려할 때 쓰는 말이다. 지금부터 우리말 아리아리에 대해 알아보자.

글 차유미 자료 한글문화연대 누리집, 네이버 우리말 사전 외

순우리말 응원 표현 '아리아리'

아리아리는 순우리말로 시험이나 시합, 경기, 업무 등에서 '힘내자'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된다.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어 표현인 'fighting(파이팅)'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다시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아자아자'에 가장 가깝다. 민요나 구전가요 속에서 아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어원이 밝혀진 바는 없다. 형용사 '아리아리하다'가 사전에 등재돼 있기는 하지만, 여럿이 다 모두 뒤섞여 또렷하게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여기서 쓰는 의미와는 다르다. 오늘날 다시 쓰이게 된 아리아리의 뜻은 '없는 길을 찾아주거나 막힌 길을 뚫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싸우지 말고, 따뜻한 격려를

응원이 필요할 때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파이팅'이다. 하지만 실제 영어권에서는 fighting을 응원 메시지로 쓰지 않는다. '싸우자'는 공격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한국식 영어 표현(콩글리시)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파이팅의 의미가 '한국 맥락에서는 격려, 자극, 지원의 뜻도 있다'라고 등재됐다. 또한,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응원의 말도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사용하는 중국어 '짜오(加油)'는 기름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일본어 '간바레(頑張れ)' 역시 끝까지 버티라는 전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어 '알레(allez)'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영어의 'go'와 같은 의미로 시합을 시작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이런 호전적인 단어를 대신하자는 의견은 끊임없이 있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아자'를 대체어로 제시했고, 한글문화연대는 '아리아리'를 쓰자는 캠페인을 꾸준히 해왔다. 그 결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리아리가 우리말 응원 구호로 사용되면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됐으며, 일상에서 파이팅을 대신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은 싸우자는 말 대신, 아름다운 우리말로 따뜻하게 격려를 보내자. 아리아리!

「월간 내일」과 함께 하는 QUIZ



「월간 내일」 2025년 3월호를 읽고 모의고사에 응시해 보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선택형 제출범위. MOEL 아카이브

다음 중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남녀고용평등법 ② 고용보험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단답형 제출범위. 체인지업! MOEL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청년 구직자와 기업 모두를 지원하는 제도는?

Hint!

차로조르 디오조르기



참여방법 | 이벤트는 QR코드를 통해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Step 1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Step 2 이벤트 응모 입력 후 제출

※ 참여기간
2025년 3월 20일(목)까지

2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 당첨자에겐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 | | | | |
|-----------|------------|-----------|-----------|
| 강○선(9867) | 라○경 (2302) | 임○숙(8079) | 황○성(1535) |
| 김○현(8420) | 백○현(1697) | 하○봄(1303) | 최○석(5643) |
| 남○철(0515) | 이○를(3714) | | |

「월간 내일」 구독 및 구독 해지 방법



- 1 「월간내일」 웹진에 접속합니다.
 - 2 [QUICK MENU]를 클릭하고, '구독신청 및 해지'를 클릭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제일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구독하시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구독을 해지하시려면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 구독 및 해지를 위해 정보입력 및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가까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제도·정책 소식이 궁금할 때,
고용노동부와 소통하고 싶을 땐
QR을 스캔하세요!

<p>웹진</p>	<p>유튜브</p>
<p>인스타그램</p>	<p>페이스북</p>
<p>블로그</p>	<p>트위터</p>

